

# 주간 통일정세

2016-32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8.6	北정권 2인자 황병서, 특하면 김정은에 무릎 꿇고 대화(연합뉴스)
	8.7	김정은, 올해 14차례 미사일 발사 때 7차례 현장 참관(연합뉴스)
	8.8	<올림픽> 北최룡해 ‘스포츠외교’ 행보…고립 돌파 의도(연합뉴스)
		사드갈등 극대화하라…北, 해외공관에 선전전 지침 하달(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현지지도에 축지법” 김정은 찬양(연합뉴스)
	8.9	<올림픽> 北 최룡해 부위원장, 탁구장 찾아 김승이 응원(연합뉴스)
	8.10	<단독> 北 최룡해, 관광·응원으로 소일…스포츠외교 실종(연합뉴스)
		北 신흥철,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총서기와 회담(연합뉴스)
		北 탁구영웅 리분희, 외화벌이 일꾼으로 변모(데일리NK) 北 TV, 새 기록영화 통해 故 김양건 생애 조명(연합뉴스)
	8.11	北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리우올림픽 일정 마치고 출국(연합뉴스)
		北 노동당 대표단 아프리카 방문…단장에 리수용(연합뉴스)
	8.12	김정은, 4·26만화영화촬영소에 설비 지원(연합뉴스)
		北, 병력부족에 軍 면제 대상도 규정 고쳐 징집(연합뉴스)
北, 김일성 부자 안치 ‘금수산태양궁전’ 화려하게 보수중(연합뉴스) 北노동신문, 올림픽 언급없이 ‘체육발전’ 선전(연합뉴스)		
경제	8.8	北, 군인에 한 끼 70g 배급…두 술이면 다 없어진다(연합뉴스)
		북중 교역액 다시 증가세 반전…中 대북제재 약발 다했나(연합뉴스)
	8.10	北경제개발구 사업, 4차 핵심협 이후 사실상 중단(연합뉴스)
		北경제 김정은 집권 이후 성장세…‘돈주’들이 변화 주도(연합뉴스)
		中, 北 수출물자 야간 틈타 운반…통관 차량 늘어(연합뉴스) 北 나진·中 상하이 화물운송 5개월 만에 재개(연합뉴스)
8.11	[단독]北, 중국에 동해NLL 조업권도 팔았다…통치자금 충당 목적(연합뉴스)	
	美 NSA 전 관리 “대북제재, 北의 대중의존도 높여”(연합뉴스) 中, 제제품목 北철광석 수입 활발…사드영향 분석도(연합뉴스)	
사회 문화	8.7	北, 이동초소 운용해 주민들 검문 강화(연합뉴스)
		北군인, 공개비판 앙심 품고 중대장 가족 살해(연합뉴스)
	8.9	북한에도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 등장(연합뉴스)

외교 국방		北 보위부, 탈북민 가족 협박하고 뇌물상납 강요(연합뉴스)
	8.10	北 병사들, 영양실조 심각...황병서 원망 목소리도(연합뉴스)
	8.11	北, 中 가까운 해산시 집중개발...김일성·김정일 동상도(연합뉴스)
	8.6	'40년 北우방' 앙골라, 첫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연합뉴스)
	8.7	北도발 안보리 대응, 中제동에 또 차질...한미일 '강수' 모드(연합뉴스)
	8.8	일본, 북한 미사일 파괴명령...3개월 상시요격 체제(연합뉴스)
		싱가포르 대북 비자 규제, 유학·사업 목적 입국에 영향(연합뉴스)
		방글라 정부, 삼성 TV·담배 밀수 적발된 北외교관 추방(연합뉴스)
	8.9	美 北도발속 'B-2' 전략폭격기 3대 괌에 전진 배치(연합뉴스)
		北 '첫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앙골라 방문(연합뉴스)
	8.10	北 "美 핵위협·경제제재가 핵보유로 떠밀어" 주장(연합뉴스)
		美 北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성경소지 사형까지"(연합뉴스)
		NHK "日, 北미사일 위협 고조에 사드 도입 검토"(연합뉴스)
	8.11	안보리 北미사일 규탄성명 中 '사드반대 명사' 요구에 불발(연합뉴스)
		北 'B-2' 괌 배치에 "핵선제타격 美독점물 아니다" 반발(연합뉴스)
8.12	미, 북핵·중국 대응 위해 괌에 '전략폭격기 3총사' 첫 동시배치(연합뉴스)	
	美 3개월 만에 또 북한여행경보...여류시 전시법 따라 처리돼(연합뉴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김정일 방문 기념동판 설치(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상원, 북한 핵실험·인권침해 규탄 선언 채택(연합뉴스)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새 활동 관측돼(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8. 7.

##### ■ 김정은, 올해 14차례 미사일 발사 때 7차례 현장 참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들어 중·단거리 발사체 도발 현장을 참관한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연합뉴스가 7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과 북한 매체 등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김 위원장은 북한의 올해 총 14차례 이뤄진 중·단거리 발사 때 7차례나 현장을 참관함.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3일 북한이 동해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나 1~5차 무수단 시험발사 때도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올해 김정은의 도발 관련 공개활동이 늘어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보는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핵무력 프로파간다가 있다”고 강조함.

2016. 8. 12.

##### ■ 김정은, 4·26만화영화촬영소에 설비 지원(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26만화영화촬영소에 '현대적 설비'를 지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만화영화 창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신데 이어 다시 만화영화 제작에 필요한 현대적 설비를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밝힘.
- 김정은은 2014년 이 촬영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한 이후 각종 지원을 했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8. 6.

##### ■ 北정권 2인자 황병서, 특히면 김정은에 무릎 꿇고 대화(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옆에서 무릎을 꿇고 말을 건네는 모습이 6일 북한 TV를 통해 또 공개됨.
-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날 새로 방영한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 105(2016)5-7'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북한군 군인가족 예술소조(팀) 경연에서 뽑힌 군부대의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 나옴.
- 인민군 수뇌부인 두 사람이 김 위원장에게 한껏 자세를 낮춘 모습을 연출한 것임. 이 모습은 전파를 타고 북한 주민들의 인방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북한 당국이 '정치적 선전 효과'를 노리고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영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런 모습들이 북한 TV에 종종 등장하는 것은 '김정은식 공포 통치'와 북한 사회의 경직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2016. 8. 8.

### ■ <올림픽> 北 최룡해 '스포츠외교' 행보...고립 돌파 의도(연합뉴스)

-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석차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 각국 수반을 만나며 활발한 '스포츠외교' 행보에 나섬.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밤 최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미세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함. 이는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제외하고 그가 브라질에서 가진 외교적 활동에 대한 북한 주요 매체의 첫 보도임.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룡해가 상당히 부지런히 만나는 것으로 같다"면서도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 인사들과의 정식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제재를 받는 상황을 최대한 희석하려 올림픽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실질적인 대외 관계나 이미지를 단숨에 바꾸는 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 2016. 8. 9.

### ■ <올림픽> 北 최룡해 부위원장, 탁구장 찾아 김송이 응원(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역도장에 이어 9일(이하 한국시간) 탁구장을 찾음.
- 최 부위원장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3관을 찾아 단식 16강전을 치른 북한 여자탁구 김송이를 응원함.
- 같은 시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탁구장을 찾음. 최 부위원장과 김 장관은 서로 다른 곳에 앉아서 마주치거나 조우하지 않음.

2016. 8. 10.

■ <단독> 北 최룡해, 관광·응원으로 소일…스포츠외교 실종(연합뉴스)

-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에서 활발한 스포츠외교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응원과 관광 등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최 부위원장이 미세우 테메르 임시대통령 등 브라질 고위 인사들과 환담했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브라질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주제 세하 외교부 장관이 이달 5일 최 부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부통령급 고위 인사를 파견한 것은 알고 있으나 테메르 권한대행 등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함.

■ 北 신홍철,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총서기와 회담(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표단 단장인 신홍철 부상이 콩고민주공화국 외무·국제협조성 총서기와 지난 8일 만나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신 부상은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와 국제정세와 관련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과 쌍무관계발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앞서 대표단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처음으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앙골라를 지난 5일 방문, 신 부상과 앙골라 대외관계성 국무비서 사이에 회담이 진행됨.

■ 北 탁구영웅 리분희, 외화벌이 일꾼으로 변모(데일리NK)

- 북한의 탁구영웅 리분희(48) 조선장애자체육협회(북한 장애인체육회) 서기장이 외제 화장품 무역을 통해 협회 운영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10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탁구 선수로 유명한 리분희가 외국 화장품 무역을 통해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과 기계 설비를 평양 회사에 넘기면서 국제 체육교류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함.
- 리분희는 지난해 5월부터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국 선양(瀋陽) 대표부 대표도 겸하고 있음.

2016. 8. 11.

■ 北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리우올림픽 일정 마치고 출국(연합뉴스)

- 최룡해(66)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 개회식 참석 등 브라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한국시간) 출국함.
- 최룡해 부위원장 일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30분 비행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갈레앙 공항을 떠남.

#### ■ 北 노동당 대표단 아프리카 방문…단장에 리수용(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름.
-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에 참가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11일 평양에서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일 신흥철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함. 외무성 대표단은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을 잇달아 방문함.

### 다. 공식행사

####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8. 8.

#### ■ 사드갈등 극대화하라…北, 해외공관에 선전전 지침 하달(연합뉴스)

- 북한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미중 충돌과 한중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드 선전전 지침을 모든 해외공관에 하달한 것으로 8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해외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 모든 해외공관에 사드 문제를 북한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세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힘.
- 한편, 정부 당국자는 정보당국이 온라인상의 일부 사드 반대 게시물의 출처가 북한이 사용하는 IP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로 추적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함.

2016. 8. 10.

■ **北 TV, 새 기록영화 통해 故 김양건 생애 조명(연합뉴스)**

- 북한이 새 기록영화를 통해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생애를 비중 있게 조명함.
-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1시간 10분 분량의 기록영화 ‘어머니 당의 품’ 제3부를 방영하면서 ‘혁명전사’로 칭한 11명 가운데 김양건의 생애와 치적을 13분 동안 소개함. 김양건은 김옥순, 전순희, 리순임, 홍원태, 김락희, 정춘실, 박영순, 김룡린, 리동규, 홍성관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개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남사업을 총괄했던 김양건의 일생을 집중 조명해 남북관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김정은에 대한 무한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양건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분석함.

2016. 8. 12.

■ **北, 병력부족에 軍 면제 대상도 규정 고쳐 징집(연합뉴스)**

- 북한이 병력부족 사태를 겪자 규정 개정을 통해 예전의 입대 면제자까지도 군사복무를 시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예전에는 외아들이거나 농장원의 자녀, 광산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일터에서 일하는 대신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됐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입대 면제자 중 30대 중반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군사복무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고 전함.
-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배급제가 무너지자 출산율이 하락했으며, 이는 2010년대 들어 입대 적령기의 청년인구 급감으로 이어짐.

■ **北, 김일성 부자 안치 '금수산태양궁전' 화려하게 보수중(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한층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충정을 바치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고 보도함.
- 북한이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보수에 나선 것은 김일성·김정일을 앞세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옴.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8. 8.

### ■ 北 노동신문 “현지도에 축지법” 김정은 찬양(연합뉴스)

- 북한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를 찬양하며 ‘자강력’으로 제재를 극복하자고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제시하시는 사상이론들에는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묘수들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원수님의 현지도도강행군은 축지법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찬양함.
- 신문은 또 “‘단숨에’,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이 시대어들은 원수님이 특출한 창조정신, 창조방식의 구현”이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중앙과 사상의 일색화, 숨결과 발걸음의 일체화를 실현해나간다는 것은 곧 김정은 동지를 닮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2016. 8. 12.

### ■ 北노동신문, 올림픽 언급 없이 ‘체육발전’ 선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체육기술 발전’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 신문은 이날 ‘체육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로’라는 큰 제목 아래 게재된 여러 기사에서 전국 각지 체육단과 체육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함.
- 북한의 이런 모습은 아직 대회 초반이지만 엄윤철(역도)과 김국향(다이빙)을 비롯한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선전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으로 보임.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2016. 8. 11.

### ■ [단독]北, 중국에 동해NLL 조업권도 팔았다..통치자금 충당 목적(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함.

-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다른 소식통은 “중국 어선은 그간 북한으로부터 얻은 조업권을 근거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해왔고, 정부는 우리 어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강조함.

## 다. 경제 상황

2016. 8. 8.

### ■ 北, 군인에 한 끼 70g 배급...두 숟이면 다 없어진다(연합뉴스)

- 북한군이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들에게 한 끼 권장량의 약 30%인 70g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한 끼 배급량 규정이 250g이지만, 양을 정확히 지켜 배급하는 부대는 드물 것”이라면서 “부대마다 150g, 100g, 심지어 70g 등 배급량이 전부 다름. 군인들끼리 ‘두 숟가락이면 밥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열악한 식량 배급 실태를 전함.
- 소식통은 “부식도 전혀 없으니, 너무 배가 고프군인들은 산에 떨어진 매젓(산열매의 일종)이라도 주워 먹으며 버틴다”면서 “악질 지휘관 중에는 아예 1개 대대를 산에 풀어놓고 매젓 3kg씩 주워오라는 과제도 낸다”고 덧붙임.

2016. 8. 10.

### ■ 北경제개발구 사업, 4차 핵심협 이후 사실상 중단(연합뉴스)

-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사업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심협 이후 사실상 전면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함.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VOA에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상담은 외국 기업과 열심히 했고, 특히 중국 기업과의 상담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다”며 “(그러나) 사실상 외국기업 유치는 ‘제로(0)’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함.
-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의 핵 관련 정책과 북한을 둘러싼 불안한 주변 여건 등을 들면서 경제개발구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 **北경제 김정은 집권 이후 성장세…‘돈주’들이 변화 주도(연합뉴스)**

- 북한 경제가 김정은 집권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이미 시장경제 매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0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출간된 저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즈니스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함.
- 임 교수는 “돈주나 사금융은 체제 전환이나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라며 “북한에서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볼 수 있는 기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판매, 서비스 같은 사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8. 8.

■ **북중 교역액 다시 증가세 반전…中 대북제재 악발 다했나(연합뉴스)**

-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과 함께 중국의 대북제재 ‘악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8일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총액은 5억377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 4억6천42만 달러보다 9.4% 증가함. 이로써 북중 교역액은 대북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됨.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8월 수출입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됨.

2016. 8. 10.

■ **中, 北 수출물자 야간 틈타 운반…통관 차량 늘어(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와중에도 중국이 다량의 물자를 주로 야간을 틈타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시의 한 소식통은 RFA에 “최근 들어 단둥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대폭 늘었다”면서 “낮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것처럼 조용하다가 밤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만 되면 북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함.
-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려명거리 건설자금은 대부분 주민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면서 “중양에서 주민들에게 려명거리 건설자금을 충성의 지원금이라고 선전하면서 강제로 걷어 들이고 있다”고 말함.

#### ■ 北 나진-中 상하이 화물운송 5개월 만에 재개(연합뉴스)

-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북한 나진항과 중국 상하이(上海)를 연결하는 화물운송 사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시 운항업무국은 중국 국적 화물선 ‘순싱’호가 지난 6일 목재 1천을 싣고 나진항을 출발해 지난 9일 상하이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힘.
- 운항업무국은 “특별한 국제 정세에 대응해 5개월 동안 운송을 중단하고 항해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혀 대북제재가 해당사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방송은 전함.

2016. 8. 11.

#### ■ 美 NSA 전 관리 “대북제재, 北의 대중의존도 높아”(연합뉴스)

- 미국 국가정보국(NSA) 관리를 지낸 전문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RFA에 “올해 상반기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주요 무역국들의 대북 교역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이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이라고 말함.
- 브라운 교수는 “올해 4~6월 중국의 대북 수입은 5억4천800만 달러로 북한이 약 2억4천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력으로 적자 부분을 메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 中, 제재품목 北철광석 수입 활발...사드영향 분석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제재품목인 철광석을 대거 수입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1일 보도함.
- 중국 대북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함경북도) 무산군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쪽 지역에서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한기득 실은 30~40t급 차량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면서 “이 차량은 대체로 중국 화룡(和龍) 인근 조차장까지 철광석을 운반하고 있다”고 밝힘.

- “단둥으로 들어오는 북한 차량도 많아지고 신의주로 향하는 중국 차량도 많아져 그야말로 북세통을 이루고 있다”면서 “현지 주민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됐느냐,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8. 11.

##### ■ 北, 中 가까운 혜산시 집중개발...김일성·김정일 동상도(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마주한 양강도 혜산시에 각종 사회경제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맬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해 2014년과 2016년 6월 촬영한 혜산시 사진을 비교하며 “혜산시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 중심지인데도 많은 투자를 앞세워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함.
- RFA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혜산시의 변화는 다른 도시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평가함.

#### 나. 시장관련

#####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8. 7.

##### ■ 北, 이동초소 운용해 주민들 검문 강화(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지에 이동초소를 운용해 주민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일본 인터넷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북한 보안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주민의 통행증 유무와 행선지, 이동 목적 등에 대해 검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함.
- 200일 전투 기간에 많은 주민이 직장에 출근하거나 농촌 동원에 참여하는 대신 개인적

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이동초소가 많아졌다는 게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의 설명임.

## 라. 사회 동향

2016. 8. 7.

### ■ 北군인, 공개비판 앙심 품고 중대장 가족 살해(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국경경비대 사관장(특무상사)이 부대원들 앞에 자신을 공개비판한 중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중대장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8일 보도함.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지난달 말 양강도 혜산시 강구동 주둔 국경경비 25여단의 한 사관장이 중대장의 어머니를 목을 조르고 딸을 물탱크에 집어넣어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함.
- 국경경비대에서 중대장과 사관장은 중국과 밀수나 탈북 방조를 통한 돈벌이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반적으로 사이가 좋지만, 감정은 정권 들어 밀수와 탈북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데일리NK는 전함.

2016. 8. 9.

### ■ 북한에도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 등장(연합뉴스)

- 함경북도 등 북중 국경지방에 24시간 문을 여는 우리의 편의점과 비슷한 형태의 상점이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함경북도를 오가는 중국 상인 이모 씨는 RFA에 “함경북도 무산과 회령 등지에 소매점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중국 돈 2만 위안(약 330만 원) 정도 밀천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이라고 말함.
-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40대의 탈북 여성은 “함경북도 무산군에 이러한 소매점이 다섯 군데나 있다”면서 “24시간 문을 여는 곳도 있다”고 밝힘.

### ■ 北 보위부, 탈북민 가족 협박하고 뇌물상납 강요(연합뉴스)

- 북한 보위부가 최근 탈북민 가족들을 노골적으로 미행·협박하고 뇌물상납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보위부는 최근 탈북 가족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먼 곳까지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고 있다”며 “외출할 때는 (보위부원의) 따가운 눈초

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담당 보위원이 직접 집에 찾아가 ‘내가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다, ‘이제 걸리는 날에는 선선한 데(햇볕이 없는 감옥을 지칭) 갈 생각을 하라’는 협박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밝힘.
- 소식통은 또 “보위 지도원은 대놓고 ‘아래 동네(한국)에 간 언니가 돈 많이 보내주는가, ‘나도 그네들 돈 좀 써보자’고 비아냥댄다”면서 “한국과 통화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는 노골적으로 뇌물상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알림.

2016. 8. 10.

#### ■ 北병사들, 영양실조 심각·황병서 원망 목소리도(연합뉴스)

- 북한 병사들 사이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하면서 군 총책임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무능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지난 3월에 입대한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는 자강도의 한 주민은 RFA에 “군인들의 식생활 수준이 말할 정도가 못 된다”며 “신입 병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은 최룡해에 비해 부정부패에 대한 검열이 느슨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체계가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병사들은 오히려 최룡해 총정치국장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며 “김정은 앞에서 보고조차 제대로 못 하는 물렁이라는 뜻에서 병사들은 황병서를 ‘물병서’라고 부른다”고 전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8. 9.

#### ■ 美, 北도발속 ‘B-2’ 전략폭격기 3대 괌에 전진 배치(연합뉴스)

- 미군이 ‘B-2’ 전략폭격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함.
- 미 전략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주리 주 위텀 공군기지에 있던 B-2 전략폭격기를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힘.
- 미군의 이번 B-2 전략폭격기 배치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6. 8. 10.

■ **北 “美 핵위협·경제제재가 핵보유로 떠밀어”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미국의 핵위협이 자신들을 핵보유로 떠밀었다며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총과산이라는 시형선교를 받았다”고 주장함
-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美, 北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성경소지 사형까지”(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힘
-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해 이같이 평가함
-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FCs) 리스트에 올라 있음.

2016. 8. 11.

■ **北, ‘B-2’ 괄 배치에 “핵선제타격 美독점물 아니다” 반발(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 3대를 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해 “핵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반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는 이날 보도에서 “괄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작전지대들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힘.
- 앞서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주리 주 위템 공군기지에 있던 B-2 전략폭격기를 미 태평양사령부 신하 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음.

2016. 8. 12.

■ **미, 북핵·중국 대응 위해 괄에 ‘전략폭격기 3총사’ 첫 동시배치(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과 남중국해 긴장 상황에서 미국이 태평양상의 전략요충지 괄에 처음으로 B-52, B-1B, B-2 등 전략폭격기 ‘3총사’를 처음으로 동시 배치함.
- 영국의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 등 외신은 미국이 B-52, B-1B, B-2 등 현재 운용 중인 세 기종의 전략폭격기를 처음으로 괄 앤더슨 공군기지에 한꺼번에 배치해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JDW는 이번 B-2 전략폭격기 동시배치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 **美, 3개월만에 또 북한여행경보...억류시 전시법 따라 처리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3개월 만에 다시 주의를 촉구함
-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면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미국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도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6. 8. 8.

■ **일본, 북한 미사일 파괴명령...3개월 상시요격 체제(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기간은 현재로선 3개월이며, 향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교도는 전함.
- 일본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상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함.

2016. 8. 10.

■ **NHK “日, 北미사일 위협 고조에 사드 도입 검토”(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NHK가 10일 전함.
-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이 1천km를 날아 일본 서부 이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km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 따른 것임.
-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조기에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올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라. 북·러 관계

2016. 8. 12.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김정일 방문 기념동판 설치(연합뉴스)**

-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방문을 기념하는 동판 표식이 세워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이 2001년 8월 러시아 방문 당시 찾았던 현지의 키로프 기계공장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의 제안으로 동판 표식이 세워졌다. 동판에는 사진은 없이 글로만 김정일 방문 사실이 기록됨.
- 이번 동판 건립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외교적 고립 상황에 처한 북한이 북러관계 강화와 김정은 정권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RFA는 설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8. 6.

■ **‘40년 北우방’ 앙골라, 첫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연합뉴스)**

- 아프리카 국가 중 북한과 4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앙골라가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 앙골라는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 외교관 2명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북한은 앙골라와 1976년 4월 수교하고 4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옴.

2016. 8. 7.

■ **北도발 안보리 대응, 中제동에 또 차질...한미일 ‘강수’ 모드(연합뉴스)**

-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시간끌기’로 또다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한미일 등 관련국들이 이전보다 강력한 대중국 설득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임.
- 7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주도로 북한의 지난 3일 노동미사일 2발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실행함.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입장을 내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인

조치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만도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함.

## 2016. 8. 8.

### ■ 싱가포르 대북 비자 규제, 유학·사업 목적 입국에 영향(연합뉴스)

- 싱가포르가 오는 10월부터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유학과 사업,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의 싱가포르 입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지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8일 보도함.
- 그동안 북한 주민은 비자 없이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현지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북한인들의 입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외국 국적자에 대한 주기적인 비자 제도 재검토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임.

### ■ 방글라 정부, 삼성 TV·담배 밀수 적발된 北외교관 추방(연합뉴스)

-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TV·에어컨과 담배 수만 갑을 밀수하다 현지 세관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에 대해 추방령을 내림.
- 8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수도 다카 주재 북한대사관의 한선익 1등서기관에게 밀수 책임을 물어 이날까지 출국하라고 전날 오후 통보함.
-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다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손영남 1등서기관이 금괴 170개 등 27kg 상당의 금을 불법 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된 바 있음.

## 2016. 8. 9.

### ■ 北, ‘첫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앙골라 방문(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으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앙골라를 방문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앙골라를 방문해 단장인 신흥철 부상과

- 앙골라 대외관계성 국무비서 사이에 회담이 진행됐다고 8일 보도함.
- 앞서 북한 매체들은 외무성 대표단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지난 1일 보도한 바 있음.

2016. 8. 10.

■ 안보리 北미사일 규탄성명 中 ‘사드반대 명시’ 요구에 불발(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사드 반대’ 문구를 성명에 넣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짐.
- 유엔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규탄성명에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함.
-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때문에 안보리의 성명 채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음.

2016. 8. 12.

■ 아르헨티나 상원, 북한 핵실험·인권침해 규탄 선언 채택(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하원에 이어 상원도 북한 핵실험과 인권침해를 규탄함.
-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개최된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및 인권 규탄 선언문(declaracion)’을 채택했다고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이 11일 전함.
- 아르헨티나 동포사회도 이북 5 도민회 아르헨티나 연합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사진전 등을 개최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음.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은 공관장 순회강연 등 공공외교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북한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있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8. 8.

■ 美38노스, 北의 6월 무수단 발사장소는 원산 갈마공항(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월 시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의 발사장소는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인 것으로 나타남.
- 7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지난 5일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힘.
- 북한은 올해 6차례의 시험 끝에 지난 6월 22일 무수단의 400km 비행에 성공한 바 있음.

2016. 8. 12.

■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새 활동 관측돼(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가운데 북쪽 입구 부근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밝힘.
-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쪽 입구와 가까운 공터에 가로 6m, 세로 9m 크기의 차양이 설치됐고, 북쪽 입구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서는 소형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함.
- 지난달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언제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으며, 버뮤데즈 연구원을 비롯한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10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11일 전격 방한...사드배치 논의(연합뉴스)
	8.11		美전문가, 한국 사드배치 핵억제 기여...중 리도 환영해야(연합뉴스)
8.12		케리 미국무 광복절 축하...한미동맹, 동북아 평화 안정기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6		중국, 사드 반대 총력전...야당의원 이용 '남남 갈등' 조장하나(연합뉴스)
			중국 '한류 때리기' 지속...중국 진출 韓 기업에 치명타(연합뉴스)
	8.8		靑 "中, 사드 본말전도" 주장에 中 매체 "적반하장" 반발(연합뉴스)
		中사드 압박 속 야당 의원들 방중...주중 대사 면담 취소(연합뉴스)	中언론, 야당의원 방중 '강행' 보도...中 매체 현장 안 나타나(연합뉴스)
	8.9		中 '사드 반대' 속내는 자국 안보...전문가 "北위협 도외시" 비판(연합뉴스)
		방중 야당의원 면담 대신 우다웨이 만난 김장수 대사(연합뉴스)	중국, 박대통령 발언 집중 보도...사드 제재 이미 시작(연합뉴스)
8.11			中 전문가 "사드 배치시 北·中 혈맹 회귀할 수도" 경고(연합뉴스)
			中환구시보, 北·노동미사일 발사규탄 성명 불발에 '사드책임론'(연합뉴스) 中전문가 "중국외교 과격화...한국 때리기는 전략적 손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7	'충무공이순신함' 9월초 일본 간다...한일군사교류 재개 '신호탄'(연합뉴스)	
	8.9	한일 '日 10억 엔' 출연문제 "상당한 진전...보고후 조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8.11		주중 러시아 대사, 사드 한국 배치 북한 위협 수준 훨씬 넘어서(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6	케리 美국무-장이 中외교부장, 북한 도발 대응 논의(연합뉴스)	
	8.9	美전문가 “중국,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수단 많지 않아”(연합뉴스)	
	8.10	랜드연구소 “北붕괴때 조율 없는 군사 개입, 美中 전쟁 촉발 가능”(연합뉴스)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불투명한 中군사 행보에 남중국해 불안↑(연합뉴스)	
8.12	항저우 G20 때 美中 정상회담한다...센카쿠-남중국해 갈등예상(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8.6	로이스, 일본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항소’ 기각 환영(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8.6	中정부선박-어선 센카쿠 무더기 접근...日 “영해침입” 강력 반발(연합뉴스)	
	8.7	中, 센카쿠에 해경선-어선 보내 연일 ‘시위...日강력 반발(연합뉴스)	
		中, ‘난정대학살 참수 경쟁 부인’ 日 방위 상의 역사인식 비난(연합뉴스)	
		중국, 동중국해 가스전에 레이더 설치...일본 ‘촉각’(연합뉴스)	
	8.8	센카쿠 갈등 격화...中 선박 대거 파견-日 ‘유인도 만들자’(연합뉴스)	
	8.9	中선박 센카쿠 연일 접근-日항의 수위 높여...관계악화 차단나(연합뉴스)	
	8.10		日외무상, 센카쿠 갈등에 ‘소심한 복수... 中대사 8분간 기다리게 해(연합뉴스)
	8.11	‘센카쿠 갈등’ 中 외교부 부장조리, 일본 방문일정 돌연 취소(연합뉴스)	
			日·필리핀 ‘남·동중국해 공조’...中에 “강압·무력 용납 못해”(연합뉴스)
8.12	中정부,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 말라’ 이례적 사전 촉구(연합뉴스)		



		中 관영매체, 日도 사드 도입 검토 소식에 민감한 반응(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8. 10.

##### ■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11일 전격 방한…사드배치 논의(연합뉴스)**

-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중장)이 11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함.
- 군 관계자는 10일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내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힘. 미 국방부의 미사일방어청은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임.
- 시링 청장은 방한 기간 우리 군 주요 인사들을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특히, 그는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사드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짐.

2016. 8. 11.

##### ■ **美전문가, 한국 사드배치 핵억제 기여…중·러도 환영해야(연합뉴스)**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는데 대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환영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정책연구기관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바이츠 선임연구원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죽는 일보다는 사드가 낫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대체 방어 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며 이같이 말함.
-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들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바이츠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임.

##### ■ **‘한국 사드배치 반대’美백악관 청원인원 10만 명 넘어(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원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등록된 ‘한국 사드배치 반대’ 청원의 서명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섬.
-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10만3천355명이 서명함. 이 청원은 ‘한국 내

- 사드 배치를 취소해 달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5일 등록됨.
- 백의원은 인터넷 청원이 등록된 뒤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60일 안에 공식 답변을 내야 함.

2016. 8. 12.

■ **케리 美국무 광복절 축하·한미동맹, 동북아 평화 안정기여(연합뉴스)**

-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축하 성명을 내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
- 케리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인과 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협력관계는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계속 번영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그는 “미국은 이 특별한 날에 한국이 자신의 성공과 문화, 역사를 축하하는데 대해 동참한다”며 모든 한국인이 즐겁고 기쁜 광복절을 맞기 바란다고 축하 성명을 마침.

나. 한·중 관계

2016. 8. 6.

■ **중국, 사드 반대 총력전…야당의원 이용 ‘남남 갈등’ 조장하나(연합뉴스)**

- 중국 언론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국 정부와 더불어 사드 배치 입장을 확고히 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사드 반대를 위한 대내외 여론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임.
- 이번에 방중하는 야당의원들은 중국 측 입장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으나, 중국이 사드 도입을 결정한 한국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한국 내 갈등을 자극하는 미묘한 국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논란이 적지 않음.

■ **중국 ‘한류 때리기’ 지속…중국 진출 韓기업에 치명타(연합뉴스)**

-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조치의 하나로 한국 연예인에 대한 활동 제한과 반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 분위기가 퍼져 관련 기업들이 잔뜩 움츠린 상황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특성상 어떤 규제를 할 때 공표를 하기보다 슬쩍 흘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한류의 경우 중국 네티즌이 민감해 나쁜 사례 한 가지만 돌아도 과급 효과는 크다”고 전함.

2016. 8. 8.

■ **青 “中, 사드 본말전도” 주장에 中 매체 “적반하장” 반발(연합뉴스)**

- 청와대가 중국 관영 매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판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적반하장’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섬.
- 청와대는 지난 7일 중국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의 사드 비판과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이런 태도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타일파’(倒打一耙<가래 뿔에 바>, 적반하장과 같은 성어)와 같은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를 긴장시킨 책임을 완전히 북한과 중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中사드 압박 속 야당 의원들 방중…주중 대사 면담 취소(연합뉴스)**

-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8일 중국을 방문함.
-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도착 직후 만나기로 했다던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면담을 취소하는 등 방중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임.
- 더민주의원 방문단에는 당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에 도착할 예정임. 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음.

■ **中언론, 야당의원 방중 ‘강행’ 보도…中매체 현장 안 나타나(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이날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으면서 이들의 방중에 앞서 7일 청와대가 방중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함.

- 지난 6일 야당 의원의 방중을 1면 톱으로 보도하며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환구시보는 김영호 의원에게 방중 전에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정작 8일 방중 후 베이징대 간담회장 등에서 중국 언론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중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활용당할 수 있다는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해 보도통제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2016. 8. 9.

### ■ 방중 야당의원 면담 대신 우다웨이 만난 김장수 대사(연합뉴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우리 외교 최일선 현장의 지휘관인 김장수 주중대사의 8일 행보가 외교가의 시선을 끌었음.
- 김 대사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방중단 6명과의 면담 대신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격적으로 만남. 김 대사가 우 대표를 만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6명이 중국에 도착한 첫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됨.
- 김 대사는 우 대표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사드 배치 반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짐.

### ■ 中 ‘사드 반대’ 속내는 자국 안보…전문가 “北위협 도외시” 비판(연합뉴스)

-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 구도에서 열세에 놓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는 한미 양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도외시한 것으로, 철저히 자국 안보 중심적인 시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옴.
- 군 관계자는 “사드는 어디까지나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중국, 차대통령 발언 집중 보도 …사드 제재 이미 시작(연합뉴스)

- 중국 매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방중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을 집중적으로 보도함.
- 이들 언론은 북핵 역제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국 측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함.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미 시작됐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음.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9일 사평(社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

다. 다만 아직 신호일 뿐 심리적 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함. 신문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한중 관계는 냉랭해지고 경제무역 협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함.

#### ■ 中 전문가 "사드 배치시 北·中 혈맹 희귀할 수도" 경고(연합뉴스)

- 중국 측 전문가가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혈맹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 중국 싱크탱크인 관구(盤古)연구소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한중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신동근 의원은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혈맹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중국 측이 말했다"며 이 같은 발언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완되는 상황에서 나온 중국 전문가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을 향해 앞으로 한중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경고와 협박성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됨.

2016. 8. 11.

#### ■ 中 환구시보, 北 노동미사일 발사규탄 성명 불발에 '사드책임론'(연합뉴스)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채택이 무산된 이유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라고 11일 주장함.
- 환구시보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시각을 예들려 전해왔다는 점에서, 이 매체의 이런 보도는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보다 사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여긴다는 인식을 드러냄.
- 정자용(鄭繼永)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과시킬 수 없었던 데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함. "사드는 중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할 것이므로 당연히 안보리 성명에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왔으나 미국과 한국이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약속을 파기했는데 과연 누구 잘못인지는 식견이 있다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비난함.

■ **中전문가 “중국의교 과격화…‘한국 때리기’는 전략적 손실”(연합뉴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격해지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손실이 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온다.
- 마용(馬勇)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학원 교수는 11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과 관계에 있어 상호 혐오에 이어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함.
- 마 교수는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와의 과도한 대치국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부 당국, 언론 매체, 학계가 당분간 희석화하는 책략을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함.

**다. 한·일 관계**

2016. 8. 7.

■ **‘충무공이순신함’ 9월초 일본 간다…한일군사교류 재개 ‘신호탄’(연합뉴스)**

- 우리 해군이 해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대양 항해훈련을 위해 파견하는 ‘순항훈련 전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군의 한 관계자는 7일 “내년에 임관하는 해사 4학년 생도들이 참가하는 순항훈련전단이 다음 달 5일 출항한다”면서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힘.
- 순항훈련전단은 해사 생도와 해군 장병을 포함해 약 600명 규모임. 이들은 4천400t급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과 4천200t급 군수지원함 ‘천지함’에 올라 일본 외에도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오는 12월 귀국할 예정임.

2016. 8. 9.

■ **한일 ‘10억 엔’ 출연문제 “상당한 진전…보고 후 조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할 10억 엔(약 107억 원)의 사용 방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 한일 양국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자금 출연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힘.
- 양국은 이달 하순 개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염두에 두고 이견 조율에 속도를 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라. 한·러 관계

2016. 8. 11.

### ■ 주중 러시아 대사, 사드 한국 배치 북한 위협 수준 훨씬 넘어서(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데니소프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밝힘.
- 데니소프 대사는 이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핵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보다 더 광범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함.
-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을 깨트리는 행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8. 6.

### ■ 케리 미국무·왕이 중외교부장, 북한 도발 대응 논의(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전화 통화로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함.
-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힘.
- 두 장관은 또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힘.

2016. 8. 9.

### ■美전문가 “중국,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수단 많지 않아”(연합뉴스)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반도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중국측 으로부터 소위 ‘보복’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옴.
- 9일(현지시간) 미국의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CFR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보복 위협’이 한국인의 공감보다는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보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함.

- 한편, 미국 국무부에서 공보담당 차관을 역임한 제임스 글래스먼은 폭스뉴스 기고에서 “북한과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함께 반발하고 있고, 북한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북-중이 한-미-일 3각협력구도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6. 8. 10.

■ **랜드연구소 “北붕괴때 조율 없는 군사개입, 美中 전쟁 촉발 가능”(연합뉴스)**

-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나 미국 또는 중국이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하지 않은 채 북한에 군사개입을 할 경우 미-중 간의 물리적 충돌, 나아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데이비드 콤포트 객원수석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이 지난 5일 발표한 ‘중국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함.
- 예상되는 군사적 손실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의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능력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 전력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 규모는 2015년을 가정했을 때보다 2025년을 가정했을 때가 더 커지며, 특히 양국 모두 사이버와 위성 전력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함.

■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불투명한 中군사 행보에 남중국해 불안↑(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 행보 때문에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의 불안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함.
- AP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 칭다오(靑島) 항에 입항한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투명성 부족으로 남중국해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스위프트 사령관을 태운 벤폴드함은 지난 8일 중국 해군과 교신훈련을 위해 칭다오 항에 입항함.

2016. 8. 12.

■ **황저우 G20 때 美中 정상회담한다…센카쿠 남중국해 갈등예상(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지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마중 양국은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추진함.
-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됨.

## 나. 미·일 관계

2016. 8. 6.

### ■ 로이스, 일본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항소’ 기각 환영(연합뉴스)

- 미국 연방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5일(현지시간)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항소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함.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글렌데일 시의 ‘평화의 소녀상’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함.
- 앞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항소와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함.

## 다. 미·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라. 중·일 관계

2016. 8. 6.

### ■ 중정부선박 어선 센카쿠 무더기 접근...日 “영해침입” 강력 반발(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중국 선박이 대거 접근해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임.
- 6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센카쿠 열도에 중국 어선과 중국 해경국 선박이 접근해 일대를 항해함.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항행한 수역이 일본이 영해로 규정한 구역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를 ‘영해 침입’으로 표현함.

- 외무성은 “중국 측이 일방적인 개발 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방적 개발을 중단하고 동중국해의 자원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2008년 6월 합의의 실행을 위한 교섭 재개에 속히 응하라고 촉구함.

## 2016. 8. 7.

### ■ 中, 센카쿠에 해경선·어선 보내 연일 ‘시위’…日강력 반발(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 연일 중국 선박이 대거 접근해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진입함. 또 이들 수역이 영해임을 전제로 설정한 접속수역(12~24해리<22~44km> 구간)에도 중국 해경국 선박 7척이 들어옴.
-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 선박의 접근이 ‘영해 침범’이라고 규정했으나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 ■ 中, ‘난징대학살 참수 경쟁 부인’ 日 방위상의 역사인식 비난(연합뉴스)

- 중국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신임 일본 방위상이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 장교 2명의 ‘목베기 경쟁’을 부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나다 신임 방위상의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역사를 부정하면 더 이상 일본의 미래는 없다며 강력 비난함.
- 이나다 신임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언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 장교가 누가 먼저 100명의 목을 베는지 경쟁했다는 과거 보도와 관련해서 “상징적 사건으로 돼 있는 100명 참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 중국, 동중국해 가스전에 레이더 설치…일본 ‘혹각’(연합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에 가스전에 설치한 시설물에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가스전에 설치한 16개의 구조물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12기’라고 부르는 시설물에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확인됨.
-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며, 현재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음.

2016. 8. 8.

■ **센카쿠 갈등 격화…中 선박 대거 파견·日 ‘유인도 만들자’(연합뉴스)**

-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다시 고조하고 있음.
-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대거 접근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며칠째 반복되는 가운데 강경론이 머리를 드는 등 충돌이 우려됨.
-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열도 일대를 전담하는 순시선 외에 다른 순시선을 추가로 동원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2016. 8. 9.

■ **중선박 센카쿠 연일 접근·日항의 수위높여…관계악화 치달나(연합뉴스)**

-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관계 악화로 치달는 형국임.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달 5일부터 센카쿠 열도에 중국 해경국 선박과 어선이 잇따라 접근한 것과 관련해 9일 오전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8일에는 일본이 접속수역(연안에서 12~24해리<약 22~44km> 구간)으로 규정한 곳에 중국 당국의 선박 15척이 진입함.

2016. 8. 10.

■ **日외무상, 센카쿠 갈등에 ‘소심한 복수’…中대사 8분간 기다리게해(연합뉴스)**

-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음.
- 1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전날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반복해 접근하는 것에 항의했는데 이때 그를 약 8분간 기다리게 함.
-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중국 선박의 접근 실태를 설명한 글과 사진을 9일 게시함.

2016. 8. 11.

■ **‘센카쿠 갈등’ 中 외교부 부장조리, 일본 방문일정 돌연 취소(연합뉴스)**

- 최근 일본명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양국 간 신경전이 격해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일본 방문이 갑자기 취소됨.
-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쿵위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의 일본 방문 일정 취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힘.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땅 고르기’ 작업을 할 계획임.

■ **日·필리핀 ‘남·동중국해 공조’…中에 “강압·무력 용납 못해”(연합뉴스)**

- 일본과 필리핀이 11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해 경고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서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법치 준수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함.
- 양측은 중국의 영유권 강화 행보와 관련, 강압이나 무력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음. 기시다 외무상은 “법치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2016. 8. 12.

■ **中정부,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 말라’ 이례적 사전 촉구(연합뉴스)**

- 일본의 패전일(8월15일)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런 의사를 외교 경로로 일본 정부에 표명했다고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이 밝힘.
-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의 영령을 받들고 있으며 이곳에는 사형당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음.

■ **中 관영매체, 日도 사드 도입 검토 소식에 민감한 반응(연합뉴스)**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2일 일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검토 소식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사드로 겪는 논란과 똑같은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시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이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게 일본 외교의 주요 사안이 된 것 같다”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냄.
- 그러면서 중국의 미사일·전자·재료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사드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전략 핵 역량을 갖추어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임.

####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8.9	中, 탈북자 신고에 포상금...탈북시도 30대 여성 2명 복송(연합뉴스)
	8.10	수학영재까지...배를 버리는 北 엘리트들, 김정은 정권에 위협(연합뉴스)
		캐나다 한인들, 북 인권법 촉구 '천리 행진'(자유아시아방송)
	8.11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 적극 시도할 것(미국의소리)
	8.12	英 컨설팅업체 "北, 최악의 현대판 노예노동국가"(연합뉴스)
美종교자유대사 "북한 같은 종교자유 침해국, 지구상에 없어"(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8.6	北통신 "北노동자 받지 말라는 것은 내정간섭" 비난(연합뉴스)
		북, 中 선양주재 영사들 소환...여중업원 집단탈출 조사(연합뉴스)
	8.7	탈북 중업원 北가족, 취중 실언으로 보위부에 긴급 체포(연합뉴스)
	8.9	北매체,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무차별한 징벌" 위협(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8.12	[단독]北, 올 들어 60여명 공개처형...김정은식 공포정치 확산(연합뉴스)
	8.7	탈북자단체, '北 김정은 현상수배 전단' 10만장 살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10	한국 NGO, 北 인권유린 피해자 매장지 간접조사(연합뉴스)
	8.11	北가족 끝내 못보고...이산가족 사망자, 생존자보다 많아졌다(연합뉴스)
대북지원	8.6	유엔, 5년간 대북사업 7천100만 달러...대북제재로 대폭감소(연합뉴스)
	8.8	유니세프, 상반기 북 아동 170만 명 영양 지원(자유아시아방송)
	8.9	유엔아동기금, 올해 北아동 170만 명에 영양지원(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8. 9.

#### ■ 中, 탈북자 신고에 포상금…탈북 시도 30대 여성 2명 복송(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서 탈북을 시도한 30대 여성 2명이 중국 주민의 신고로 복송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9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이달 초 무산군에서는 두만강을 건너간 2명의 30대 여성이 현지인의 신고로 체포돼 바로 우리(북한)측 보위부에 넘겨졌다”고 말함.
- 중국 공안은 최근 국경에 대한 관리와 통제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월경해 거주·취업한 북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 위안(약 17만원), 북한 주민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람에게는 2천 위안의 포상금을 준다는 공고문까지 내걸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소식통은 “때문에 최근 탈북자를 동정해 도와주거나 북한과 장사거래하겠다는 사람 대신 신고자만 나날이 늘고 있다”면서 “또한 요즘에는 탈북을 돕거나 그들과 밀수하려는 중국인을 바보로 취급하면서 이들까지 모두 신고해 버린다”고 강조함.

2016. 8. 10.

#### ■ 수학영재까지…배를 버리는 北 엘리트들, 김정은 정권에 위협(연합뉴스)

-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연합조보(聯合早報)가 최근 잇따르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위협으로 해석한 사설을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음.
- 신문은 최근 ‘빈발하는 탈북사건, 김정은 정권 위협’ 제하 사설에서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북한군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리, 홍콩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살 수학영재 등의 탈북 및 망명신청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함.
- 사설은 끝으로 “고압적 강권 통치하의 북한 주민이 김 씨 정권에 대한 신망을 버리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민생곤란을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씀.



■ **캐나다 한인들, 북 인권법 촉구 ‘천리 행진’(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핵 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캐나다 정부와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섬.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와 토론토지구 한인회 등 7개 단체는 오는 15일 ‘한반도 민주화통일을 위한 천리길’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힘.
-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 수도 오타와까지 400km 구간에서 4주 동안 펼쳐질 이번 행진을 통해 우선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촉구될 예정임.
- 도보행진을 통해 모아진 청원서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9일 오타와에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실에 직접 전달되고 이후 한국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임.

2016. 8. 11.

■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 적극 시도할 것(미국의소리)**

-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일 임기를 공식 시작한 퀀타나 특별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힘.

2016. 8. 12.

■ **英 컨설팅업체 “北, 최악의 현대판 노예노동국가”(연합뉴스)**

- 영국의 위험분석 컨설팅업체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현대판 노예노동국가’로 지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영국의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11일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강제 노역 실태, 관련법의 내용과 이행 상황 등을 분석한 현대노예제도지수(Modern Slavery Index) 보고서를 발표함.
- 앞서 호주의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도 지난 5월 발표한 ‘2016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 2천50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이 현대판 노예로 추정된다고 밝힘.

■ **美종교자유대사 “북한 같은 종교자유 침해국, 지구상에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12일 “기본적 인권

- 과 종교의 자유를 북한만큼 침해하는 국가는 지구 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사피스타인 대사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 기사를 포함한 각국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 회견)에서 “북한 정부의 잔인성과 억압, 독재 행위로 고통받는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사피스타인 대사는 “우리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8. 6.

### ■ 北통신 “北노동자 받지 말라는 것은 내정간섭”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6일 미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북한 근로자들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폭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는 우리(북)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니 하며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해보려고 온갖 비렬한(비열한) 놀음을 벌려놓고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함.
- 통신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과 조국에 있는 가족들은 미국과 일본 등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가증시킬 목적 밑에 ‘해외 근로자 인권유린’ 설을 유포시키고 있는 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임.

### ■ 북, 中 선양주재 영사들 소환·여종업원 집단탈출 조사(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선양(瀋陽) 주재 영사들을 평양으로 소환해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 사건을 한 달 넘게 조사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중국 선양의 소식통은 RFA에 “북한이 지난 7월 초 심양 총영사관 영사들을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했다”면서 “그들은 선양 영사관 소속이지만 (집단탈출 사건이 발생한) 상하이(上海) 지역을 관할하는 영사들로 소환 후 엄격한 사상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의 조선족 사업가는 RFA에 “영사들이 평양으로 소환된 후 선양주재 북한영사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살얼음판”이라며 “예전에는 영사관 측에서 일삼아 먼저 걸어오던 전화도 모두 차단한 채 외부와의 통로를 단절하고 있다”고 말함.

2016. 8. 7.

■ **탈북 종업원 北가족, 취중 실언으로 보위부에 긴급 체포(연합뉴스)**

- 중국 Ningbo(寧波) 류경식당에 일하다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의 한 가족이 취중 실언으로 북한 국가보위부에 긴급 체포됐다는 주장이 나옴.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평양에서 사는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가족 중 한 가족이 말실수로 인해 국가보위부에 긴급 체포됐다는 얘기를 복수의 평양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힘.
- 최성룡 납북자기족모임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귀순한 종업원들의 가족을 묘향산 교육시설에 집단 구금한 뒤 강습교육(사상교육)을 벌였으며,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6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2016. 8. 9.

■ **北매체,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무자비한 징벌” 위협(연합뉴스)**

- 북한이 9일 국내 탈북단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5천만 달러(553억 원 상당)에 현상 수배한다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징벌의 불소나기를 자청하는 쥐새끼 무리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사촉을 받은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반공화국 뼈라살포 망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탈북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서 ‘북조선 해방 구국 전선’ 명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의 글이 담긴 전단 10만 장을 살포한 바 있음.

2016. 8. 12.

■ **(단독)北, 올 들어 60여명 공개처형...김정은식 공포정치 확산(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 주민들에 대한 공개처형을 대폭 늘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공안기구 중심의 주민 단속기구인 ‘3·12 상무’를 재가동하는 등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올해 8월 현재 북한 당국은 약 60여명의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수(30여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말함.

- 최근 들어 3·12 상무는 200일 전투를 위한 강제노역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른 외부지원 급감과 내부재원 고갈로 노동력 외에 가용 수단이 없어지자 직장 및 거주지 이탈자를 잡아다가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8. 7.

#### ■ 탈북자단체, '北 김정은 현상수배 전단' 10만장 살포(연합뉴스)

- 탈북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살포했다고 7일 밝힘.
- 전단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5천만 달러에 현상 수배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담김. 김정은 위원장의 컬러 사진과 수배 죄명·혈통에 대한 설명 등도 실림.
- 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은 “어제(6일) 현상수배 전단 10만장을 북한으로 보냈다”면서 “지역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되므로 대북전단 살포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함.

2016. 8. 10.

#### ■ 한국 NGO, 北 인권유린 피해자 매장지 간접조사(연합뉴스)

- 우리나라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매장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함.
-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이영환 사무국장은 VOA에 “북한 전역에 걸쳐있는 인권 유린 사망자, 특히 실종자들의 시신 또는 유해들이 집단매장 되어 있는 곳이나 추정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 당국은 교회소, 관리소 등에서 사망하거나 처형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간이화장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유해들은 특정지역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8. 7.

■ **외교부, '임신부 포함 7명 탈북' 주장에 "확인 어렵다"(연합뉴스)**

-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를 포함한 여성 6명과 어린이가 탈북해 최근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탈북민과 관련한 구체 사항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해당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함.
- 일부 언론은 이날 출산이 임박한 30대 여성과 어린이이를 동반한 20대 여성 등 7명이 탈북해 태국 난민보호시설에서 대기하면서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6. 8. 11.

■ **北가족 끝내 못보고...이산가족 사망자, 생존자보다 많아졌다(연합뉴스)**

- 올해 들어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됨. 25년 후에는 생존자 전원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며 생애 한 번이라도 북(北)에 있는 일가족을 만나려면 연간 7천200명은 상봉에 나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상봉 예정자의 상당수가 80대 이상 초고령층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분석함.
- 이용화 연구위원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대부분이 초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했다”고 말함.

## 5. 대북지원

2016. 8. 6.

■ **유엔, 5년간 대북사업 7천100만 달러...대북제재로 대폭감소(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향후 5년간 대북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액수가 지난 같은 기간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예산으로 7천100만 달러(한화 790억 원)를 책정했으며, 이는 2011~2015년의 예산 1억2천만 달러보다 적은 규모임.
- 세부 분야별 필요 예산을 보면 건강 분야가 약 3천6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영양이 1천700만 달러, 식수·위생 분야가 1천100만 달러, 프로그램 평가 약 200만 달러 등임.

2016. 8. 8.

■ **유니세프, 상반기 북 아동 170만 명 영양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상반기인 7월 31일까지 아프거나 영양실조인 북한 어린이 600만 명 중 170만 명을 지원했다고 밝힘.
- 유엔 구호기구가 7일 공개한 ‘북한 인도주의 지원 상황 보고서’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어린이의 건강 회복과 수도시설 개선에 집중함.
- 유엔아동기금은 2016년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천8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상반기 동안 확보한 대북지원자금은 4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힘. 필요한 자금의 78%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2016. 8. 9.

■ **유엔아동기금, 올해 北아동 170만 명에 영양지원(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1~7월 북한 아동 17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유엔아동기금은 최근 공개한 ‘북한 인도주의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아이들에게 영양강화 식품, 비타민, 긴급구호 약품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고 설명함.
-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계획한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천8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가 필요하지만 상반기 확보한 대북 지원자금은 400만 달러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RFA는 덧붙임.